현악4중주 '콰르텟21' 초청공연

13일 강릉문화예술관 대공연장

【강릉】현악4중주 '콰르텟21' 초청공연이 13일 오후3시, 오후7시30분 2차례에 걸쳐 강릉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강릉시가 주최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콰르텟21'은 하이든의 '현악4중주 G장조 Op.77 No.1'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1991년 창단된 '콰르텟21'은 베를린에서 열린 '윤이상 1주기 추모 음악제'를 비롯해 연주를 통한 대한민국 문화사절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현악 4중주곡의 진수인 베토벤 현악 4중주 전곡 시리즈 연주 및 낭만의 연인 지중해, 북유럽의 정취 등 다양한 주제로 연주를 펼쳐 2006 올해의 예술상, 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연주자로는 동아음악 콩쿠르 및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제1바이올린 김현미를 비롯해 제2바올린에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 김필균, 비올라는 독일 뒤셀도르프 캄머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을 역임한 위찬주, 첼로는 일본 키리시마 국제음악제 상임 아티스트로 활약한 박경옥이 출연해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전석 1만원.

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

원주 우산초교생 뮤지컬 공연

14일 '우리사이 짱이야' 선보여

【원주】올해 3월부터 '뮤지컬 바이러스'에 도전한 원주 우산초교 학생들의 첫 작품 '우리사이 짱이야'가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우리사이 짱이야'가 오는 14일 오후2시, 5시 인동예술극장에서 개최된다.

이 작품은 우산초교 6학년 보람반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부와 뮤지컬부가 1년간 준비한 공연으로 박찬수 담임교사가 연출, 조지훈 학생이 조연출을 맡았다.

보람반 학생들은 배우, 코러스, 밴드 등으로 나눠 특활시간은 물론 방과 후, 주말 등을 활용해 연습했다. 또 조명, 소품준비, 의상, 음향, 핀마이크 등 반 학생 모두가 참여해 준비했다. 만화가 황미나씨의 작품이 원작인 '우리사이 짱이야'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자신감이 없고 소외를 당하는 아림이와 항상 즐겁게 학교를 다니는 준호가 겪는 갈등과 우정을 그렸다.

무대에 오르는 학생들은 'sos' '댄싱 퀸' 등 뮤지컬 '맘마미아' '그리스'에 나온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설영기자snow0@kwnews.co.kr

서양화가 이근범씨 개인전

【강릉】서양화가 이근범씨 개인전이 13, 14일 이틀 동안 강릉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근범씨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얼굴을 해체할 때 얼굴 너머로 완전히 다른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의도의 그림인 '지워진 머리'를 비롯해 새롭고 낯선 생성과 다양성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양화가 박춘미씨 개인전

【강릉】서양화가 박춘미씨 개인전이 13일부터 21일까지 강릉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박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사회의 거대 도시를 등장시켜 인간을 규격화하는 어둡고 차가운 그리드를 작품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강원연극배우협회 13일 '금 따는 콩밭' 공연

전문연극배우들 한무대서 뭉친다

◇강원연극배우협회가 13일 공연하는 연극 '금 따는 콩밭'.

故방호석 전 연극인협회 태백시지부장 추모

협회 첫 제정 '올해의 배우상' 시상식도 열려

도내 전문연극배우들이 소속 극단을 잠시 나와 한 작품 안에 모인다.

강원연극배우협회(회장 : 김귀선 극단굴렁쇠 대표)는 13일 오후4시, 7시, 춘천봄내극장에서 연극 '금 따는 콩밭'을 선보인다.

소설가 김유정의 원작으로 지난 5월 속초에서 열린 제25회 강원연극제에서 금상과 희곡상을 받은 작품이다.

1930년대 금광에 이골이 난 '수재'의 꾐에 무지하고 가난한 농민 '영식'이 자신의 콩밭에서 금줄을 찾으려다가 한 해 농사를 망친다는 이야기로, 김유정 소설 특유의 현실인식과 해학성을 무대에서 표현한다. 연출은 춘천 출신 연극인 변유정(35)씨가 맡는다.

2006년 창립한 강원연극배우협회에는 현재 도내 13개 극단, 60여명의 전문연극배우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번 기획공연은 2006년 12월 '돈 내지 맙시다' 이후 두번째 무대이며 연극인협회 태백시지부장을 역임하고 2007년 12월 폐암으로 숨진 故 방호석씨를 추모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윤승균·전은주·양흥주·조민철(연극사회) 김대건(노뜰) 석경환(굴렁쇠) 김동석(꿈하늘) 김태영(청봉) 이지선(아트쓰리씨어터) 홍부향씨가 출연한다.

이날은 오후5시 이사회를 거쳐 강원연극배우협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올해의 배우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7시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김귀선 강원연극배우협회장은 "강원연극배우협회는 창립 이후 3회 워크숍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배우 중심의 모임으로 강원연극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그녀들의 유쾌한 이야기

김혜연씨 네번째 개인전 … 위트 가득한 상상의 세계 표현

◇김혜연 作 '날 잡아봐라'

2006년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대상 작가인 김혜연씨의 네전째 개인전이 대구시 소헌컨템포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업실이 있는 강릉을 배경으로 한 유머와 위트 가득한 상상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주로 여성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비율이 맞지 않는 팔과 다리, 몸에 비해 크게 표현된 얼굴과 무표정한 모습 등은 보는 이들을 절로 웃음짓게 하는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작가는 한지와 요철지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 속에 자신만의 독특한 자화상을 하나씩 심어가며 여자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강렬한 색상과 한치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구성의 작품이지만 선과 색의 절묘한 조합으로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관동대 한국화학부와 중앙대대학원 한국화학과를 졸업한 김혜연씨는 각종 아트페어와 기획전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로 2005년 이후 매년 개인전을 열고 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인도·네팔 스케치 여행기

양구 출신 서양화가 박양진씨 국내 첫 개인전

◇박양진 作

양구 출신 서양화가 박양진(50)씨의 국내 첫 개인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물파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 박씨는 6년 전 인도와 네팔로 떠난 스케치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볏짚을 정리하는 촌로의 모습부터 아이를 씻기는 아낙네와 거리에서 만난 걸인,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현지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화폭안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재해석해 사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질감의 작품으로 완성했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씨는 "박양진씨의 작업은 사진이 대신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인위적인 조작감이나 억지스러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5년 프랑스 파리 뮐리에갤러리 초대전을 비롯해 99 크로스오버 3인전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노원미술협회 드로잉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이유라의 '강원소리…' 공연

13일 춘천국악원 풍류당

강원소리진흥회는 13일 오후6시 춘천국악원 풍류당에서 '이유라의 강원소리-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원도아리랑을 비롯해 철원 콩농사소리, 정선아라리, 화천곱새치기 소리, 양구 얼레지타령, 횡성 동그랑땡, 군밤타령 등 귀에 익은 '강원의 소리'를 선보인다.

또 님찾아 아리랑, 조각배, 배띄워라, 연꽃피어오르리, 가야지 등 인기 국악가요 공연이 이유라씨와 강원소리진흥회 회원 50여명의 신명나는 무대로 펼쳐진다.

'강릉 in 디지털 소나무 2008' 사진전

【강릉】'강릉 in 디지털 소나무 2008' 사진전이 13일부터 17일까지 강릉문화의집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강릉문화의집 소속 '강릉 in 디지털'팀이 지난 1년 동안 찍은 소나무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다. 강릉의 3대 명품 가운데 하나인 소나무를 다양한 모습과 시각으로 재조명했다. 강릉문화의집은 2004년부터 강릉의 골목, 시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 달력으로 제작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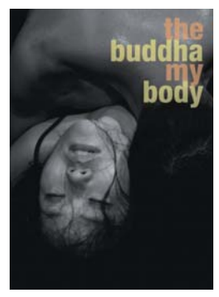
강릉문화의집은 이번 소나무를 소재로 2009년 달력을 제작, 전시회 기간 관람객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또 2006, 2007년 찍은 강릉의 시장을 소재로 사진집을 제작,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오늘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강릉】제59회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7시 강릉문화예술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연세대 음대 출신 음악가들이 마련하는 음악의 밤으로 꾸며진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임승빈씨의 지휘로 베르디 서곡 운명의 힘을 시작으로 테너 강무림, 소프라노 조경화, 바리톤 이규석 성승민이 출연해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축배의 노래 등 주옥같은 우리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전석 5,000원.

원주극단 노뜰 '붓다 마이 바디' 공연



【강릉】원주극단 노뜰(대표 : 원영오)이 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붓다 마이 바디(The Buddha My Body)'를 공연한다.

'붓다 마이 바디'는 노뜰이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 및 호주 예술인들과 공동 작업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아들과 임신에 수치심을 느끼며 들키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손녀가 등장한다. 숨을 거둔 어머니의 영혼은 20대로 돌아가 아들과 손녀에게 '믿음이 불러오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내용이다.

연출을 맡은 원영오 대표는 "일상공간에서 일상인물들이 결핍을 느끼고 고통과 번뇌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며 "연극적인 텍스트를 몸짓과 소리, 공간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12월 13일 open
통해 활어회의 名家

머구리
머구리 로고는 소설가 이외수 님의 글씨입니다.

춘천시 퇴계동 사무소 앞, 일성아파트 건너편
☎ 033 - 256 - 0880

아시아나항공 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시리즈

지 역	상품명	1인 상품가격	출발일
미 국	100% 출발확정 LA특급호텔 미서부연안(몬트레이)/라스베가스 8일	2,190,000원~	매주 월,수,금 출발
유 럽	알프스 쉴트호른 + 호반의 도시 루째른 + 로마 야경 서유럽 4국 8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2,790,000원~	매주 토,화 출발
남태평양	품격특가/팁포함, 만 55세 이상인 분들께 1인 10만원 할인 대자연속으로 호주/뉴질랜드 북섬 8일	2,990,000원~	12/20, 12/27
동남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3대 자연유산인 하롱베이 베트남 (하롱베이+닌빈) 5일	649,000원~	매주 출발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왓 준특급호텔) 캄보디아 씨엠립(앙코르왓) 5일	779,000원~	매주 목 출발
중 국	한폭의 수채화 같은 계림 계림, 양삭, 용승온천 6일	479,000원~	매주 월 출발
	초특가로 떠나는 중국의 명산 황산(黃山) 여행!! 항주/황산(黃山) 4일 (서호유람선포함)	509,000원~	매주 출발
	삼색 도시로 떠나는 여행 상해, 항주, 소주 4일	549,000원~	매일 출발
국내여행	제주도 2박3일 추억여행	249,000원~	주중 출발
	제주도 1박2일 골프투어 - 36H	579,000원~	전화문의 요망

■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전일정 숙식 및 입장료, 각종세금, 유류할증료, 해외여행자보험,나라별 특식포함
■ 불포함 사항 : 여권 및 비자(중국)비용, 개인경비 및 각종 팁 (상품마다 상이함), 연말연시 추가요금 있음

※전세계 할인항공권 판매
※전세계 비자 대행

예약문의 모두여행사 ☎731-8000 · 롯데관광 ☎734-7000